

보험료 저렴한 무·저해지 판매 ↑·· 고개드는 불안전 판매

3년새 급성장·· 불안전 판매 우려도
일반 상품보다 10~20% 저렴 '장점'
중도 해지 때 환급금 리스크 따져야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시장이 3년 새 급성장했다. 보험료를 낮춰 가입을 늘리려는 보험사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성은 좋은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만 집중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불안전 판매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개발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처음 출시된 무·저해지 보험은 첫째 3만건을 기록한 후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2018년 176만건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신계약 건수	34	321	853	1,764	1,080
생명보험	34	266	630	935	664
손해보험	-	55	223	829	416
신계약(초회)보험료	58	439	946	1,596	992
생명보험	58	403	795	1,025	609
손해보험	-	36	151	571	383

로 급증하고 있다. 신계약이 늘면서 초회보험료도 2015년 58억원,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2018년 15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만에 108만건의 신계약이 체결, 초회보험료만 992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장기보험을 주로 파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생보업계가 보험료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영향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보험

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납입기간이 기준 20년 이하인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무·저해지형을 적용할 수 있던 것을 모든 보장성으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가 2015년 7월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저해지 환급형을 도입한 상품을 출시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메리츠화재가 2016년 7월 건강보험에 저·무해지 환급금 기능을 적용한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10~20% 싼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을 40세 남자가 2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납입완료 시점 이전 해지 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저해지)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다. 해지 환급금이 없는(무해지) 경우는 보험료가 21.9% 저렴하다.

문제는 중도 해지한 경우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불안전판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저해지 환급에 대한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에서도 무·저해지 환급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입 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된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개발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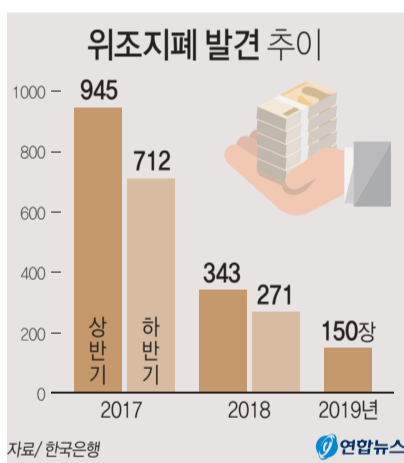
상반기 위조지폐 150장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

한은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대량 위조사태 없고 구권 지폐 줄어

올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위조 사태가 없었던 데다 5000원권 구권의 위조지폐가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은이 직접 발견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50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반기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343장) 대비 193장(56.3%), 전월(271장) 대비 121장(44.6%)이 각각 줄었다.



위조지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새로운 대량 위조사태가 없었고 5000원권 구권(기번호 77246 포함)의 위조지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6월 검거된 위조범이 제작한 5000원권 구권 위조지폐의 경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5만 4000여장이 발견됐다.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만원

권 57장(38.0%) ▲5000원권 53장(35.3%) ▲5만원권 35장(23.4%) ▲1000원권 5장(3.3%) 순이었다. 5만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종의 위조지폐가 감소한 가운데 만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위조지폐 대부분(93%)은 금융기관(101장)과 한은(38장)이 발견했다. 나머지는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경우로 11장이었다.

금융기관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 101장 중 89장(88.1%)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장(63.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장(14.9%), 인천 10장(9.9%) 순으로 조사됐다.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 개수는 32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5만원권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11개), 1000원권(3개)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손상화폐 소폭 증가·· 대체비 483억

올 상반기 3억5000만장 폐기

올해 상반기 손상폐 폐기한 화폐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2조 272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억 1000만장(2조 2399억원) 대비 4000만장(13.2%) 증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83억원이었다.

은행권은 3억3000만장(2조 2712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1억8000만장(은행권 폐기액의 53.7%), 1000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으로 집계됐다.

주화는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다. 화종별로는 10원화 600만개(주화 폐기액의 44.9%), 100원화 470만개

(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반 국민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3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0억5000만원) 대비 5억8000만원(18.9%)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김희주 기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세번째)과 강래오 셰프(왼쪽 두번째), 출연자들이 '우리 양파·마늘을 부탁해' 영상을 통해 양파, 마늘 농가를 응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농협은행장, 양파·마늘 농가 돕기 동참

홍보 영상으로 소비 촉진 도와

NH농협은행은 SNS 홍보모델인 강래오 셰프와 이대훈 은행장이 최근 과일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마늘 농가를 응원하는 '우리 양파·마늘을 부탁해'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장과 강 셰프는 양파, 마늘을 활용해 양파쌈, 통마늘새우를 직접 요리하고, 양파·마늘의 효능 등을 설명하며 양파와 마늘 소비촉진을 통해 어려운 농가 돕기를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SNS

S를 통해 영상 속 양파쌈, 통마늘새우 요리의 이름을 지어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마늘2.5kg, 양파3kg, 삼겹살500g 세트'를 제공한다.

이 행장은 "국민들이 양파와 마늘을 활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양파·마늘 소비를 통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농협은행은 우리 농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협 본연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GB금융·산업인력공 NCS 활용·성과 창출 맞손

DGB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중소·중견기업 활용과 성과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DGB금융그룹은 DGB데이터시스템을 통해 NCS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활용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공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GB금융그룹의 NCS 기반 블라인드채용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한다. 대구·경북권 중소·중견기업의 NCS 사업 참여를 확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과 지역



DGB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중소·중견기업 활용과 성과창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DGB금융그룹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115@